

# 뿌리없이 자라는 과학기술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지난 8월 하순, 16세기의 측우기가 발견되었다 하여 신문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15세기 세종 때 발명된 측우기를 무척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이는 지금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다. 그저 남아 있다 해도 18세기 것이 기껏인 형편이니 2백 년 이상 앞선 측우기를 발견한 것은 대단한 뉴스이다. 그런데 이 발견을 앞장서 발표한 학자의 전공을 언론은 한결 같이 '과학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 학자의 전공은 '과학사'라 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과학의 역사 방면에 이렇다 할 활동이나 연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측우기에 대한 고증이라면 과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알맞을 것 같아서, 본인 뜻과는 상관 없이 언론이 그렇게 발표한 모양이다.

과학자나 기술자가 어쩌다가 옛날 것, 옛날 일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말하면 그는 갑자기 '과학사' 전공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금속공학 전공자가 옛날의 종이나 솟쇠 그릇에 대해 말하거나, 조선공학 전공자가 거북선에 대해 말하면 그들 역시 과학기술사 전공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구에 탁월한 공을 세운 과학기술자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그들 어느 분도 과학사 또는 과학기술사를 자기 전공이라 내세운 일은 없다.

한국에 과학사라는 학문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해방 이전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다. 홍익섭은 이미 해방 전에 잡지에 "조선과학사"를 연재하고, 그것을 뒤이어 책으로 남겨 그의 성가를 결정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스스로를 한국사 학자라 했지 과학사 전공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후 학계에서 과학사를 전공으로 내세운 대표적 학자는 전상운과 송상용 정도가 시작일 것이다. 전상운은 『한국과학기술사』를 지어 이 분야에 이름을 남겼고, 송상용은 미국에서 과학사를 전공하고 귀국하여 특히 1970년대 한국 과학사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드디어 198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과학사-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생겨 과학사를 국내에서 전공할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과학사를 전공할 길이 이쯤에 처음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학문 수준과 과학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이유야 여하튼 과학사라는 학문이 제법 발달한 나라는 모두 소위 선진국뿐이다. 그러니 선진국이 못 되는 이 나라에 과학사 학과가 있을 까닭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그것 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구두선처럼 되뇌이면서도, 막상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연구 등에는 완전 눈감고 달리는 것이 '한국의 과학기술이라는 열차'다.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들여다 보노라면 기가 딱찰 때가 많다. 수많은 전공 분야가 술하게 나열되어 있고, 또 그 각 방면에 두루 연구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지만, 과학기술 문제 전반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전통이나 사고 방식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학문적으로 생각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때 중국에 갔다가 나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과학의 기초를 닦는 데 열성인가를 보고 다시 놀랐다. 이번에 사온 책 가운데에는 『세계의 유명과학자 전기』 물리학자편 제3권이 있다. 이 책은 1988년 시작된 "과학자 전기 사전"이라는 계획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이 사전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전 세계 과학자 8천 명의 전기를 수록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의학, 지리, 기술자와 발명가 등의 각 분야에 걸친 책을 먼저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9월 27일 중국을 떠나며 호텔에서 집어 온 『인민일보』에는 『중국과학기술사』 30권짜리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 있었다. 가난하다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사 연구의 성황은 나에게서는 그저 놀랍다 못해 두려울 지경이다.

서구의 선진국들과 역시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런 과학 기초가 없는 풍토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은 거짓말 가운데 상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과학사란 학문은 과학의 기초 분야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일 따름이지만 그저 다른 전문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심심풀이로 해서 되는 학문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심심하면 '과학사 전공'을 내세운다고 과학사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사'가 전문 분야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직 서울대에 전공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학부에 그런 학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년에서야 교육부는 새삼스럽게 각 대학에 공문까지 보내 '과학학과'를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몇 대학이 신청하자 교육부는 공무니를 뒤로 빼고 말았다. 각 대학에 증원만을 해주고는 그 범위 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과학학과를 신청했던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당국은 새 학과를 만들어 재정 부담을 떠맡기보다는 몇 기존 학과에 증원해서 돈을 절약하려 할 것은 정한 이치이다. 과학학과를 신청하라는 공문은 왜 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사건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 사건으로 한국과학사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결국 과학학과 신청 대학 중 실제 학과를 만들게 된 곳은 전북대 하나뿐이 되었다. 30년 동안 서양 과학사의 연구와 보급에 힘쓴 오진곤 교수에게는 여간 경사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학사가 꽃피기에는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과학사의 발전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는 없기 때문이다. ▣

---

박성래/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 하와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이며 인문대학장을 맡고 있다. 외국어대 출판부장,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과학저술인협회 부회장, 과학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과학저술상 과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중국 과학의 사상』, 『과학사서설』, 『한국과학사』, 『이야기과학사』, 『한국과학의 발견』 외 다수가 있다.